

성신강림 대축일

기도서 P 309

제1독서(사 도 2, 1-11)  
제2독서(고린전12, 3b-7.12-13)  
복 음(요 한 20, 19-23)

#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 전주교구  
편집자 사 목 국  
인쇄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감 론



## 문을 닫고 싶은 유혹

### 안 용 기 신부

배양이 작열하는 어느 날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옷은 젖고 갈증이 났다. 그때 한 형제가 나타났다.

“수고하십니까 신부님. 목이 마르실테니 한잔 하려 가지지요.” 나는 일손을 놓고 그를 따라나섰다. 한잔 두잔 그리고 석잔…… 결국 나는 그 형제에게 나를 보이고 말았다. 소식은 꼬리를 물고 눈물기처럼 갈수록 커지며 두 손처럼 번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초상화가 술지게미로 못박혀 있음을 보았다. 순간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재판장의 야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혼자 생각하였다. 성자(聖子)께서 육화(肉化)의 강생이 없었던들 언제까지나 신비와 흠숭의 대상이 아니었을 까. 쟁쟁한 마리의 아쉬운 애원도, 유다스나 베드로에 대한 원망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닌가 모두가 육화(肉化)의 탓이다. 차라리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있었을 것을. 그랬다면 겁쟁이나 무관심한 놈이라는 말은 들어오지도 말고타의 난도질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잠시나마 절망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 육화(肉化)의 보람이란게 무엇인가. 겨우 얻은게 취급받는 하잘것 없는 친구들이란 말인가. 저들의 인정(認定)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힘도 없고 겁쟁이 제자들 같은 친구들. 불리하면 도망갈 친구들. 이로울 때 미소짓는 얼굴로 요구만 하는 친구들. 주다보면 끝내는 빈털털이가 되겠지. 주년처럼 심장까지 털어주어야 하고 문질러지 하나 없어 남의 무덤을 빌리는 신세가 되겠지. 하기가 그때가친 나도 보일거라고는 주년처럼 상처난 모구리나 손 밖에 없겠지. 혹시 주님나 위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제라도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제자들처럼 문을 닫아버릴까. 문제는 주님이다. 문을 닫는다고 뭇들어 오실 그분이 아니고. 빌라도에게는 칩묵을 지키시켰지만 내게는 “두드러라 곧 열리리라”는 신조를 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말까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실 것 아닌가. 요나처럼 설령 바다까지 도망간다 해도 결코 그분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감냥에 체통을 생각하며 지렁이의 번을 말하지만 공간이 변하고 시간이 흐른 후 추자껍질처럼 되었을 때도 폐문에 후회함이 없을까. 후회함이 없는 삶, 그렇다. 오만에 회개와 용서를 간직한다면 문을 닫을 이유를 찾지 못하리라. 결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베틀레헴의 육화(肉化)를 거부해서는 안되리라. 우정과 평화를 위해 문을 열어야 하리라. 온 몸이 아니 온 생애가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난도질의 대상이 된다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년처럼 육화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일손을 놓고 형제를 따라가지 않고, 일손을 놓지 않고 형제와 함께 함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리라.  
(주현동 주임신부)



## 움직여야 사는데...

### —또 교통요금 인상—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 움직일 수 없다면 증병을 앓는 환자일 것이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비록 육체에 갇혀있다 해도 그 울안에서라도 꿈처럼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이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 자유인인가 아닌가를 구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맘껏 싸돌아 다닐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속박을 느끼면 그 역시 자유인이 아님에는 틀림없다) 여하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움직여야 한다.

옛날에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몰랐고, 과학문명도 발달되지 않았을 뿐더러 생활영역이 좁아서 멀리 돌아다니지 않았다.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만 걸어서 돌아다니면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는 다르다. 시간에 쫓기고 생활에 몰려 이리 저리 열심히 뛰어 야 한다. 기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빠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피나리 붓짐을 지고 한양길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터덜터덜는 완행버스나 기차를 탔고, 이제는 특급과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 나라가 하루 생활권이 되고 만 것이다. 좁혀진 생활권, 참 좋다.

그런데 그 교통요금이 또 오른 것이다. 벌써 몇년 사이에 몇차례가 오른지도 모를 정도로 자주 올랐다. 어쨌거나 문제다. 시내버스 요금 20원 인상이라면 그리 큰 것이 아닌 것 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온 식구들이 일터와 학교를, 때때로 시장과 병원을 찾다 보면 그것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에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으니, 더욱 고민이다. 여기에 서민들의 슬픔이 있다. 또 이것이 운명일 수 만도 없다.

요금 할인 혜택, 돈이 없어서 공부도 쟁겨친 근로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진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 숲 정 이 산책



부디 건강하십시오!

### 성령과 재생

### 주님의 성전을 우러르며...

—원평성당 신축에 대한 허(虛)와 실(實)을 말한다—

원평본당 주임신부 김 태 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다도서 3:5)

아직도 개신교 신도들만큼은 못하지만 가톨릭 신도들도 「성령운동」을 통해서 다소 「성령」이라는 말이 입에서 자주 회자된 것을 볼 때 꼭 다행으로 생각한다. 10여년 전만 해도 주교님들의 입에서 「성령에 대한 설교가 제일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시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아 왔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로마 8:2)에 살고 있다. 「야담」에서 「모세」까지를 틀림 이전의 죄의 상태(로마 5:13-14),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를 틀림의 지배 하의 죄의 상태(로마 6:14)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 생활(로마 8:2, 고린후 3:6)로 성서적인 「시대구분」(로마5-7장)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의 시대구분이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것, 지금 구태여 그 이유를 따질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깊은 관심과 그에 대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리스찬 생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 뿐이다. 이것이 신도생활의 중생의 비결이다. 지금의 시대적 중표는 이 사실을 일러 주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신학적인 정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머리」로 알아듣기 이전에 「마음」으로 알아들어야 할 문제이고, 「체험」으로 이해할 문제이다. 성령을 가르켜 「능력」(뉘나미스)라고 한다. 성부의 능력, 성자의 능력, 그것이 인간에게 「작용」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성령」이라 표현한다. 또한 「성령」이 뜻하는 바는 하느님은 모든 자기의 피조물에게 생명력을 수여하는 생명의 하느님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의 「루야흐」, 「프유바」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력의 신물인데,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하느님께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 「재생」이라는 말은 「새 생명」, 「새 출생」, 「영적인 부활」, 「새 창조」 등 신도들이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초자연적 생명」이라는 뜻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Ⅱ고린도 5:17) 여기서 「안에 있으면」(엔 크리스도)란 말은 인간에 대한 그분의 능력의 작용으로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 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갈라 5:16). 「안에 있으면」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던 강할 수록 한 영혼은 수동적이 된다. 재생(중생)이 충만해진다는 뜻이다.

노송동 주임신부 김정원

「편지요」 하고 우체부의 소리가 들린다. 뒤이어 「도장 좀 주셔야겠어요」 하는 말에 도장을 찾아가지고 문을 연다. 미국에서 온 등기다. 편지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레 쓴 편지와 350달러 소액환이 들어 있다.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감사의 정을 느낀다. 주인공은 몇년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얼마동안 고생을 하다가,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경영하며 살고있는 교우다. 매달 수입의 10/1을 원평성당 신축을 위해 보내오고 있다. 만년 일도, 본 일도 없다. 하지만 어려운 본당의 성전신축에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다는 내용과 함께 벌써 7개월째 송금을 하고 있다. 정말 고맙고 흐뭇한 일이다. 신앙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고국 땅에 사랑을 실천하게 하나보다..

작공 4개월째, 그 사이 여러가지 흐뭇하고 고마웠던 일들, 서글웠던 일들도 많았다. 하지만 기기묘묘한 주의 섭리와 함께 원평성당 신축의 대역사가 깊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잘못된 풍문때문에 어렵게 되어감을 느껴 조심스레 허와 실을 말하고 싶다.

1억 3천여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공사대역서를 받고 걱정하던 차 직영을 하던 9천여만원선에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집도 없이 직영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를 해오며 시멘트, 자갈 등 자재를 직접 구입하며, 월 2회 간조(노임조달)를 하다보니 자금난에 진담을 빼야만 했다. 항간에는 원평성당은 한 독지가가 몇천만원을 회사해서 공사비가 충분하다느니, 로마에서 전액 보조했다느니 하여 관심 있던 분들, 그리고 이 고장 출신 신자들까지도 무관심 내지 성의를 보이지 않음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9천만원 공사비중 본당 준비금 2천만원과 로마 보조금 2천만원, 그외는 몇 분들의 정성스레 보내주는 현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산사와 모악산의 진입로변에 있는 원평성당! 예배당과 원불교당, 금산사에 비해 너무도 허술하고 황량하기만 하던 성당,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던 신자들조차 성당인지도 몰랐을 이곳, 이제 주님의 거룩한 전당이 기개를 띤다.

그동안 이모저모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의 문화한인 나를 코치해 주시는 판리국장 신부님, 연인원 120여명의 노력봉사과 귀중한 서예품을 회사해 주신 수류 신부님과 교우분, 어려운 살림을 아껴 큰 돈을 모아 주었던 교구 동창 신부님들과 여러 선배 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작고 크게 정성을 모아주셨던 많은 분들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가운데 뼈를 깎아 정성스럽게 헌금한 본당 신자들, 모두 모두 고마운 분들이다. 이제 호소하고 싶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된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다.

「우리들의 성전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가난한 과부의 정성을 어찌 여기시는 주님의 섭리를 가슴깊이 확신하면서.....

□이전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저)  
전주 남문연(대지여판 일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보신·보양·고단위 영양식품  
토롱탕을 권합니다.

**土 籠 的 집**  
전주시 경원동 1가 78-3  
(긴중서관 옆 송월타울 2층)  
전화 ② 8 2 6 9  
정 형 석(시메온)

신부화장·파마·교우분들  
특별우대

**데레사 미용실**  
경기전 앞 ② 1 7 0 3  
범 데 레 사(순례)

## 주교관을 떠나신 김재덕 주교님

본 교구 교구장직을 사임하신 김재덕 주교님께서는 그동안 생활해온 주교관에서 거처를 옮기셨다.

전주시 교동에 있는 전 성심학교 교장 사택이었던 한옥을 수리, 지난 5월 31일 완전히 이사하신 것이다.

주교님의 그동안 수고하신 보람으로 교구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하며 건강하심과 매일 복된 날이시길 기도 드립니다.

연락이나 방문은 아래 주소를 이용하면 된다.

주소 : 전주시 교동 1가 129-6호 전화 : ☎ 9189

## 「글라라회 수녀원」 건립, 기공식 가져...

독일 아우스부르크에 본부를 둔 글라라 봉쇄 수도회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본 교구에 진출, 교구에 영신적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김주교님의 주선으로 작년년부터 이미 독일에 있는 글라라 봉쇄 수녀원 본원과 협의, 본 교구에 진출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독일 본원에서 2차례 교구를 방문하여 제반 문제를 협의해 온 바 있다.

황등 해바라기 농장에 대지 3,000평을 확보하고 독일 수녀회 자체경비로 건립될 것이며, 이미 지난 5월 27일 기공식을 가진 것이다.

이번에 교구에 진출하게 되는 글라라 봉쇄 수녀회는 1250년경 성녀 글라라 생존 당시 설립된 수도회로써 일반 봉쇄 수도회와는 약간 달리, 방ziger 성인의 정신을 따라 형제 자매들이 가지는 형제적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민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인교류가 가능하며 단체의 영신상담과 피정 등도 지도하게 된다.

아무튼 우리 교구내에 영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될 수도회가 오게 됨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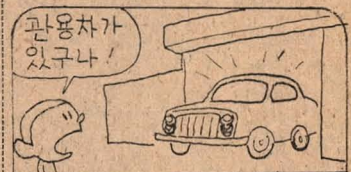
## 본당 사이 좁힌 「친선 체육 대회」

현대에 적용할 포교와 사목을 위하여 가능한 한 본당을 분할하여 늘려 왔다. 그래서 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표현이 실생활에서는 어색한채로 지내온 현실이었는데, 제2지구와 이리 지역에서는 그 지역 모든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각각 한 자리를 이뤄 다정하고 열기에 넘친 하루를 지냈다.

양 지역 모두 오전에는 예수 승천 대축일 합동미사를 드리고 공동으로 점심 식사를 나누는 후, 2부 행사로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군산·옥구지역 5개본당 1,400여 교우들은 달리기, 풍선터뜨리기, 발뿌고 달리기 등 가벼운 운동으로 폭소 만발한 가운데 지냈으며, 창인동·주현동 본당은 900여명의 교우들이 국민학생에서 노인인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나누어 공굴리기, 장애물 경기, 이어달리기 등 웃음과 목이 쉴 정도의 열띤 응원 가운데 우의를 나눴다고 한다.

아무런 사고없이 승천 기념 행사를 치르고, 생생(?)하다고 혹평하는 교회 안에 정경고 친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심에 찬사를 드린다.

## 요심이 (409) 김병오



### 보사부 허가제품 「토롱진액」

안 내  
저희 업소에서는 금번 보사부 식품허가(제10호)를 받은 토롱진액을 형제 자매분에게 특별우대 공급코저 합니다.  
당 「토롱진액」은 종전의 토롱탕에 비해 60배의 고농도로 저희 업소에서만 취급하는 허가식품임을 감안, 많은 애호를 양원합니다.

효능 : 당뇨병, 간질환, 위장질환, 결핵, 고혈압, 저혈압, 부인병, 요통, 발육부진, 만성피로.

### 한국토롱연구소

이리직매장(2-2102)  
(이리전제-제일극장 중간)  
대표 유경옥(베로니카)

###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워크엔드  
Weekend  
맥그리거  
MCGREGOR



버킹엄  
Buckingham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 4451  
유 율 리 안 나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 2513

한 철 재 (비오)

### 르 네 상 스

비디오(V.T.R) 음악 감상실

음악 애호가들께 회소식!!

음악 가족을 모집합니다

전주 중앙동 1가 (낙원가구 앞)  
신희루엔 삼익피아노 3층 ☎1764  
배 세시리아·송 발라바(삼섭)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시사항

- 6월 8일(월)부터는 연중 제10주간입니다
- 문학강좌...일시-6월 20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타  
강사-이법선 교수, 제목-작가의 정신 자세
- 양재철 신부 영명축하연 없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환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김병구

1. 사도회 월례회: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본당신부님 사무실, 회장·고문·감사·구역장·반장·각 신실 단체인장 꼭 참석 바랍니다
  2. 견진성사: 6월 7일(일) 10시 30분 공식미사  
주교님 집전
  3.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6월 11일(목) 10시 30분 강당
  4. 형제회 피정: 6월 21일 중앙성당 강당, 9시~4시까지
  5. 공소방문: 미사 오후 3시 간중리공소
  6. 영세준비 일정표
    - ① 종합교리-6월 16일(화)~19일(금)  
6월 23일(화)~24일(수)  
시간: 오전반-10시 30분, 오후반-8시
    - ② 시험 및 참고-6월 25일~26일  
시간: 오전반-9시 30분부터, 오후반-8시부터
    - ③ 영세일자-28(일) 저녁미사
  7. 경노잔치: 6월 12일(금) 어머니 미사 후 강당  
주최-착한 사마리아인회  
참석범위-본당 신자로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 지난주 봉헌금: 433,154원  
사제양성후원금: 169명 629,246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 ☆ 축! 양신부님 영명축일: 13일(토) 성안토니오 축일  
14일(일) 공식미사중에 축하행사 있습니다
1. 제18차 성령세미나 개최: 15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저녁 8시부터
  5. 수녀님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
  6.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열왕기 상권 전제
  7. 성가정회 모임: 매주(수) 저녁미사 후
  8. 신자 가정에 전화 접수 바람: 전화있는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327,404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유아세례일: 12일 오전 9시까지 접수 바람  
대부모 모시고 오세요
  2.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11시 보좌신부님 지도
  3. 주일학교 교리: 가정의 귀염등이 신앙교육 일부를  
교사들에게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4. 성모의 밤 행사에 협조해 주신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성모의 밤 행사 사진 찾아가세요, 사무실에서
  6. 본당 교우님을 한가지씩 활동단체에 가입하여 성화  
와 표양에 힘써시다
- 지난주 봉헌금: 243,565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노선경·최재  
홍 형제)
2. 축! 영명: 김희남(베드로) 보좌신부님의 영명축일  
6월 29일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3.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6월 14일 오전 9시
4. 청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보좌신부님 사무실

5. 청년교리: 매주일 저녁미사 후 보좌신부님 지도
  6. 주일학교 자모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01,02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심부녀회: 10일 오후 2시
  4. 예비자 교리: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11시)  
예비자들을 교리시간으로 인도합니다
  5. 가정방문: 6월 10.11.12일 교리교사들이 가정방문  
합니다
  6. 4지구 체육대회 참가자 신청바랍니다
  7. 마이크 기증: 손누시아씨 감사합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낙균 ② 강기호  
신자들의 기도-차종선
- 지난주 봉헌금: 154,170원 교무금: 198,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첫 영성체: 오전 9시
  3. 본당 김혜레나 수녀님께서 6월 8일부터 10일간 대구  
본원으로 피정 가십니다. 수녀님의 피정동안에 영육  
간에 주의 은총안에서 마치고돌록 기도드립니다
  4.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아침-5시 30분, 공식미사-10시, 오후-8시  
평일-아침-5시 30분, 오후미사-8시
  5.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귀례  
독서-① 박대규 ②홍성조, 기도-김경주
- 지난주 봉헌금: 123,31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영  
보좌 신부 박영주  
사도 회장 이종두

1.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9시 30분)
  2. 사도회: 공식미사 후
  3. 견진교리: 6월 8일부터(저녁 8시)
  4. 중·고생 소풍: 오늘(7일) 학생미사 후 출발  
장소-구이저수지
  5. 4지구 학생체육대회: 14일, 해성학교 운동장
  6. 교리교사 임시총회: 회장-임영숙(안나), 부회장-  
송경열(떠뜨), 총무-최종숙(요안나)
  7. 교리교사 친목 배구대회: 오늘(7일) 11시
  8. 구역 회합일정: 풍남동1구-6월 11일 오후 2시 김영자  
동원산동3구-6월 11일 오후 8시 조재복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규, 독서-① 문치구 ②김창선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 이영태 ②김홍기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 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498,98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밤 8시 미사후
  2. 꾸리아 회합: 차주 오후 2시
  3. 영세 예정: 6월 21일 ※ 대부·모 선정 바랍니다
  4. 고등학교 남·녀 합동 썰: 오늘 야외에서 있음
- 지난주 봉헌금: 120,070원 교무금: 105,000원  
 사제양성후원성금: 222,852원